

주일예배

오전 10:00

사회: 김학수목사

(*) 표시는 일어섭니다.

찬 양	한중사랑교회 찬양팀 / 다같이
*목상기도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찬송가 64장 / 다같이
대표기도	조영환 집사
성경봉독	창세기 39장 1~6절 / 사회자
설 교	“아침부터 저녁까지” / 서영희 목사
찬 양	찬송가 430장 / 다같이
함성기도	다같이
특 송	1대4지역(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헌 금	찬송가 50장 / 다같이
헌금기도	서영희 목사
*찬 양	부흥(이 땅의 황무함을) / 다같이
*축 도	서영희 목사
성도의 교제	통지 / 새신자 환영

봉사안내

	6월 10일	6월 17일	6월 24일	7월 1일
봉사	1대7지역	1대8지역	1대9지역	1대10지역
특송	1대4지역	1대5지역	1대6지역	1대7지역
사회	김학수목사	김 성목사	조황주목사	이상부장로
기도	조영환집사	박봉선집사	최명철집사	김연화집사

수요일예배, 토요성경공부

수요일예배	찬양: 남승명 설교: 김 성<본문 고전1:18~21>
토요모임	찬양: 김학수 반별성경학습
백두산모임	매주수요일 오전10시 인도: 김 성 목사
주바라기모임	매주목요일 오전10시 인도: 김학수 목사

암송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알림

◎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 무명을 제외한 주일, 감사, 십일조, 절기, 기타헌금의 명단이 후보에 기재됩니다.

■ 십일조: 강복화, 강영자₃, 김기택, 김덕녀, 김수화, 김순옥₁₇, 김연월, 김영숙₁₆, 김영옥₈, 김혜순₁, 안봉여, 양홍길, 유용녀, 이기순, 이정숙₆, 이정진, 이종필, 이준화₆, 임홍, 전은영(조황주), 정연옥₁, 정옥자₃, 정준자₁, 채영금, 최성호₂, 한순금₁, 황금선₁, 황미옥, 황애자, 황연실, 황채선, 무명₁

■ 감사헌금: 강경실, 강영숙₁, 강종술, 강준자₅, 권용(배태숙), 권태영₂, 김경희₄, 김광옥₂, 김성도₂, 김송숙, 김수화, 김연화₃, 김영숙, 김영숙₁₄, 김영옥₈, 김영희₈, 김옥분₈, 김옥선₈, 김용덕₂, 김용숙₂, 김응호₁, 김인숙₂, 김인숙₉, 김제철, 김중식, 김춘란₂, 김춘매₁, 남림, 남승명(배태숙), 남영숙, 남영현, 남홍자(탈원), 류범준, 류창해, 문성열, 문옥녀, 박성호₂, 박순옥₄, 박영수₂, 박용근, 박일천, 방춘자, 백현옥, 서영희목사, 성순임, 성옥녀, 손명도, 신규일, 안원석, 엄상무, 원금순, 유석기, 유석림, 유월선, 윤기현, 이기순, 이상부, 이순애₂, 이순자₂, 이순희₁, 이영순₂, 이영애₆, 이영화₆, 이운설, 이정자₁, 이준화₆, 임경애, 임남순, 임복순, 장영순₃, 장혜자, 전복덕(정학), 정금선₁, 정금선₂, 정복순₂, 정연₂, 정옥순₄, 조영애₁, 조영숙₁, 주혁준₁, 차준복, 채규범(박성영), 채영주, 최경순₃, 최광준₁, 최금자₂, 최림순, 최명옥₁, 최복순₃, 최복순₅, 최성호₂, 최옥금, 최차남, 하용범, 한춘화₁, 한홍룡, 함춘자₁, 허옥진, 홍철국, 황금선₁, 황보국, 황옥화

■ 건축헌금: 이순자₂₂, 임정화, 임채근, 조영애₁ ■ 선교헌금: 강은혜

■ 기타헌금: 김성남₁

■ 후원(약값): 박정숙₃, 오정애, 한순금₁

■ 후원(일반): 김수화, 노영숙, 석중녀, 이옥교, 정향린

◎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간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이상부-

중국어를 학원에서 배우기 시작한지 벌써 8개월이 되었다. 재주가 없고, 끈기가 없어서 무엇을 배워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지라 시작할 때는 얼마나 할까? 걱정도 되었는데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더 하고 싶은 것이 중국어 공부이다. 절름고 처음으로 선생님(한족)에게서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는 칭찬도 받았다^^ 얼마 전 북경에 갔었는데 그때 일이다. 사천요리를 먹으면서 식당에서 서빙 하는 아가씨와 지금까지 배운 중국어 실력으로 대화를 많이 했다. 목사님 표현으로는 내가 아는 중국어 단어는 모두 사용했다고 했다. 아무튼 같이 가진 분들이 모두 놀랐다. 이분이 중국 사람인가?(내 생각으로 ㅎㅎ) 식사 후에 차 타러 나왔는데 그 종업원이 막 뛰어 오는 게 아닌가. 그 식당의 사은품을 주기 위해서 한 50미터를 뛰어서왔다. 일행 중에서 나한테만 주었는데 손까지 흔들며 배웅을 해 주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아마 대화 중에 내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느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었다. 참 기분 좋은 기억이 되었다. 무엇을 배워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던 내가 이렇게 중국어를 오랫동안 재미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젊은 동포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과 애정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통하게 되는 것 같다. 그 사람의 능력과 달란트와 관계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같다. 요즘 홈페이지를 보면 76세 되신 안봉녀 집사님의 글, 컴퓨터를 전혀 하지 못했던 집사님들의 감격스런 홈페이지 입문, 그리고 글을 거의 처음 쓰시지만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용기를 내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들, 특별히 홈페이지가 여러 성도님들의 글로 가득하기에 너무 행복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컴퓨터 많이 배우셔서 우리교회 홈페이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가슴여런 고백으로, 또 재미난 일상의 일들로 늘 가득 채워졌으면 합니다. 언젠가 제가 중국어로 한번 쓰겠습니다. 짜이 짜옌~~

줄석연왕

지역	교구	27일	3일	지역	교구
1-01	101	6	8	2-07	2
	102	12	8		2
1-02	103	8	9	2-08	2
	104	4	5		2
	105	2	3		2
1-03	106	5	5	2-09	2
	107	8	6		2
	108	5	3		2
	109	5	7	2-10	2
1-04	110	6	4		2
	111	4	3	2-11	2
1-05	112	14	15		2
	113	5	6		2
	114	12	7	2-12	2
	115	4	5		2
1-06	116	4	4	2-13	2
	117	3	4		2
	118	5	5	2-14	2
1-07	119	6	4	2-15	2
	120	5	5	2대 소	3
	121	9	8		3
1-08	122	8	7	3-01	3
	123	3	6		3
	124	4	5		3
	125	9	8	3-02	3
1-09	126	5	7		3
	127	6	9		3
	128	7	7	3-03	3
	129	4	5		3
1-10	130	4	7		3
	131	8	5	3-04	3
	132	8	7		3
1-11	133	6	7		3
	134	6	9	3-05	3
1-12	135	5	6		3
	136	8	7	3-06	3
1-13	137	11	9		3
	138	5	7	3-07	3
	1대 소계	239	242		3
2-01	201	9	10		4
	202	7	8		4
2-02	203	7	8	4-01	4
	204	12	11		4
2-03	205	6	7	4-02	4
	206	9	8	3,4대	4
2-04	207	9	10	어린이	4
	208	9	10	새신자	4
2-05	209	6	7	미확	4
	210	7	6	소계	4
	211	9	10		4
2-06	212	3	8	총계	4
	213	3	3		4